

‘광주형 일자리’ 벼랑끝 협상

市·勞·전문가 밤샘 원탁회의
오늘 오전 성사 여부 발표
현대차노조·민노총 반대 변수

광주에 현대자동차 합작 공장을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 (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벼랑끝 협상’이 지난 31일에도 결렬을 내지 못했다. 지역 노동계의 주장을 수렴해 작성한 수정 협약서에 광주시가 현대차의 의견을 담은 중재안이 최종 원탁회의에서 논의됐으나 이날 밤늦게까지 접점을 찾지 못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사의 키를 쥐고 있는 원탁회의의 결과는 1일 오전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지난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윤종해 의장에게 모든 협상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뒤이어 오후 8시부터 열리는 광주시, 노동계, 전문가 등 7명이 참석한 최종원탁회의에서 지역노동계와 현대차의 의견을 담은 최종협약서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는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윤종해 의장, 이기근 기아차 전 회장, 박남인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 박명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백승렬 어고노믹스 대표 등 7명이 참석했다. 지역노동계는 적정 임금, 적정 근로시간, 원·하청관계 개선, 노사 책임경영 등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원칙에 기반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 등을 포함 시키는 대신 임금 협상 5년 유예 등을 삭제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수정협약서를 갖고 지난 30일부터 현대차와 추가 협상을 벌여 중재안을 마련했다.

지역노동계와 현대차의 의견을 모두 포함한 중재안에 대해 광주시가 원탁회의의 참석자들이 어느 정도 설득할 지가 협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시간적으로 최종 원탁회의에서 타결 또는 무산이 결정될 것”이라며 “한치 앞도 장담하기 어려운 정도로 상호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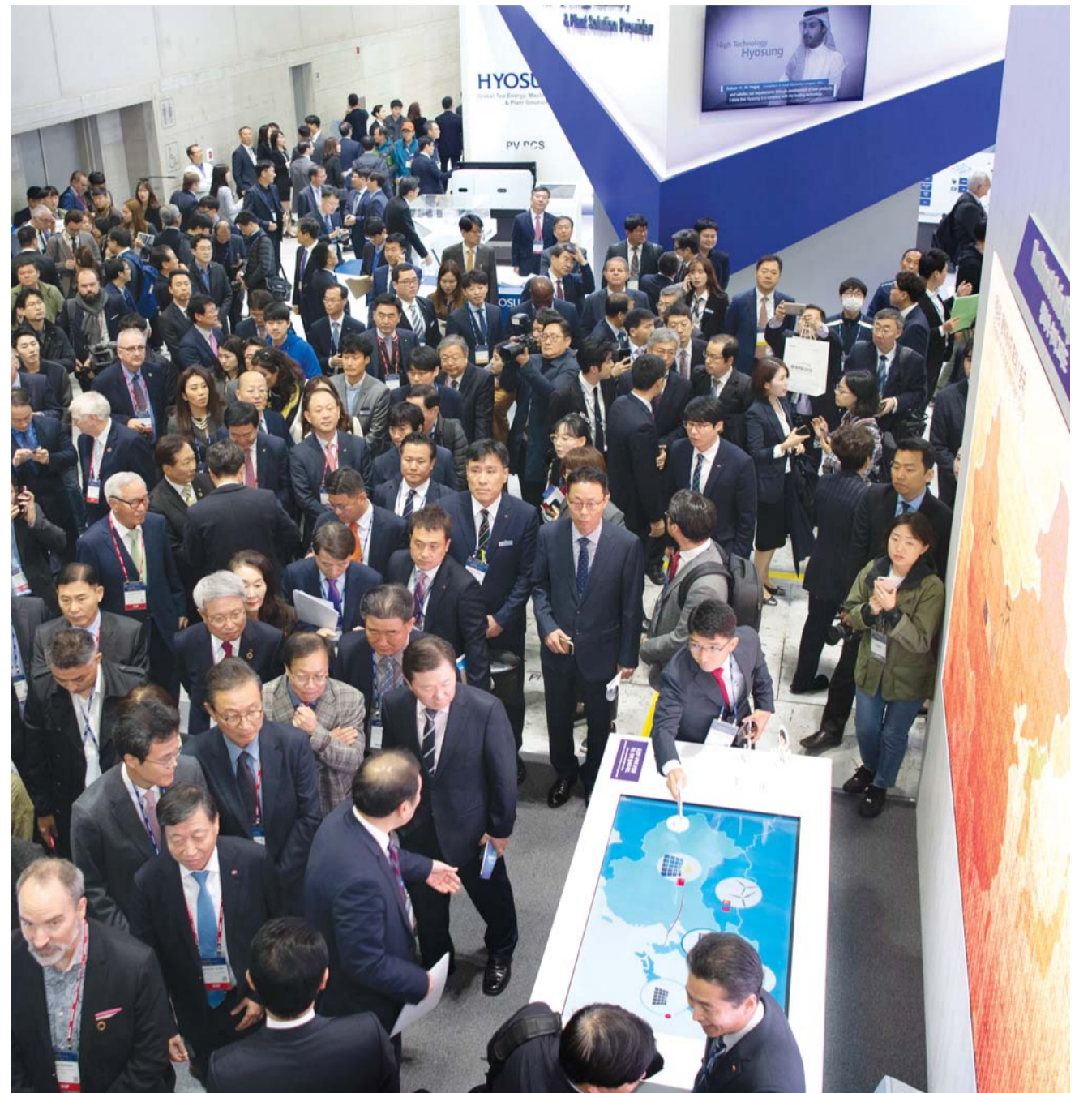
광주형 일자리 관련 협상이 막바지에 이

르면서 현대자동차 노조에 이어 민노총의 반대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으며, 광주지역 고등학생들까지 나서 “지역 젊은이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지지하고 나서는 등 일부 노동계와 광주지역 정서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부는 지난 31일 광산구 쌍암동 광주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다”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구조 변화·명확하지 않은 책임 소재 등을 고려하면 안정적 일자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회사가 광주형 일자리 협약에 동의하면 총파업을 불사하는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지역의 열악한 경제 사정을 감안해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같은 날 조선대 총학생회와 단과대학학생회가 조선대 서석출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형 일자리사업 이행을 촉구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018 빅스포 ... 미래 에너지를 본다 한국전력이 주관하는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 2018’(빅스포-BIXPO 2018) 개막식 이후 내빈들이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변환’을 주제로 오는 2일까지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와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빅스포에는 효성과 지멘스(SIEMENS), 삼성전자 등 국내외 282개 기업이 참여해 에너지 신기술을 선보인다. 또 세계 각국 에너지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을 비롯한 7만명(해외 3000명)이 방문하는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15면 /최한배 기자 choi@kwangju.co.kr

/ 뉴스 초점 / 5·18 성폭행 사건 조사 및 처벌 어떻게 되나

공소시효 이미 완성 ... 처벌은 현실적 불가능 인적·물적 증거 확보 진상규명부터 이뤄져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 처벌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31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1980년 5월에 저질러진 성폭력 범죄는 이미 공소시효(최대 7년)가 완성돼 현실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헌정 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특별법도 대상이 내란, 외환, 이적, 집단 살해죄 등이어서 성폭력이 포함되지 않는다. 또 군에 의한 민간인 대상 범죄를 ‘극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형법불소급 원칙과 시간적 관할권 규정에 의해 제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관련기사 4면〉
공소시효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 폭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를 추가 시킨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안은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안은 처벌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는 계엄군 등의 성폭력이 내란의 과정인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규정돼야 한다. 하지만 이는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다.

5·18 성폭행 가해자들을 찾아내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확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5·18 진상조사위가 출범하면 정부 공동조사단이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가해자를 찾아내야 한다. 일단 진상조사위는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특정 부대의 작전 일지와 병력 배치, 부대 이동경로 등을 파헤쳐 가해자를 찾아내려 하겠지만 38년이 지난 상황이라는 점에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위는 강력한 채찍과 함께 당근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군 부대 지휘관 등을 대상으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는 한편 압수수색명장 청구 의뢰로 인적·물적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고발 및 수사 요청권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계엄군에 참여했던 장병과 현장 지휘관의 양심 고백도 절실하다. 이를 위해 진실을 고백하는 조건으로 가해자의 사법적 처벌 유예 및 신원을 밝히지 않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진실 규명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도 필요하다. 국방부, 국정원 등에 5·18 당시 성폭행과 관련한 각종 기록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처벌에 앞서 진상 규명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이나 양심고백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군공항 이전 늦어진다

국방부 “후보지역 여론 부정적 ... 점진적 추진”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 후보지역의 여론 추이를 바라며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전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 31일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김동철·유승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보상 정책토론회’에서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군 공항 이전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 단장은 “전남 후보 지역 지자체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면서 “해당 지자체 여론 추이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호적인 여건(여론) 조성 추이를 고려, 후보 지역 지자체장과 협의 후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비 우호적인 지역 여론이 호전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후보지 결정이 다소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광주시가 추천한 예비 이전 후보지 4곳(영암·무안·신안·해남)을 방문, 주민들의 찬반 정서를 비롯해 단체장 의견,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반응 등 여론을 살펴보고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어떤 각도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주름이 생긴 것도 아닌데, 왜 나이 들어 보일까요?
주름, 기미, 잡티는 쉽게 기릴 수 있지만, 힘 없이 처진 얼굴탄력은 숨길 수 없죠
뿌리부터 인삼에너지를 담은 캡슐에센스가 약해진 탄력 지지 구조를 강화해주는 자음생에센스-
이제, 시간의 흐름과 외부자극에도 흔들림 없이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성화수, 플레그시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www.facebook.com/sulwhasoo_official •플레그시스토어: 02-541-9270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
Deductive Object © Kimsooja Studio LLC